논어 14편 헌문 46장 · 원문·풀이

原壤夷俟。子曰：「幼而不孫弟，長而無述焉，老而不死，是爲賊。」以杖叩其脛。

독음 · 원양이사 자왈 유이불손제 장이무술언 로이불사 시위적 이장고기경

쉬운 풀이(요약) · 원양이 무례한 자세로 기다리자 공자는 어릴 때 공손하지 않고 자라서 이룬 것이 없는 처신을 엄하게 꾸짖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原 근본 원 원 / 壤 흙 양 양 / 夷 동쪽 오랑캐 이 이 / 俟 기다릴 사 사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幼 어릴 유 유 / 而 말이을 이

不 아닐 불 / 孫 손자 손 손 / 弟 아우 제 / 長 길 장 장

無 없을 무 무 / 述 이을 술 술 / 焉 어찌 언 언 / 老 늙은이 로 로

死 죽을 사 사 / 是 이 시 시 / 爲 할 위 / 賊 도적 적 적

以 써 이 이 / 杖 지팡이 장 장 / 叩 두드릴 고 고 / 其 그 기

脛 정강이 경 경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